

국 어

1. 올바른 표준어 표기로만 묶인 것은?

- ① 설거지, 자장면, 초생달
- ② 등곶길, 삭월세, 무릎팍
- ③ 멍게, 바짓가래이, 반진고리
- ④ 찜뽕, 꼬깔모자, 떡만둣국
- ⑤ 최댓값, 귀이개, 우렁챙이

2.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그는 설움에 (㉠) 울음을 터뜨렸다.
- 마을 이장이 소에게 (㉡) 꿈쩍을 못한다.
- 신에게 제물을 (㉢) 우리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 아가씨들이 양산을 (㉣)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	㉡	㉢	㉣
①	받쳐	받혀	바쳐	받쳐
②	받쳐	받쳐	바쳐	받혀
③	받쳐	받혀	바쳐	받혀
④	바쳐	받쳐	받혀	바쳐
⑤	바쳐	받혀	받쳐	바쳐

3.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한 것은?

- ① 들에 핀 장미꽃이 여간 탐스럽다.
- ②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와 바람이 불었다.
- ③ 오해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④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⑤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4. 다음 글의 ㉠이 동일한 단모음이 쓰인 단어끼리 묶인 것은?

단모음은 자음과는 달리 조음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과정이 없다. 따라서 분류 기준도 자음과는 다르게 설정해야만 한다. 전통적으로는 혀의 최고점 위치와 입술 모양을 통해 단모음을 분류해 왔다. 이 중 혀의 최고점 위치는 전후 위치와 상하 높이로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단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와 높이, ㉠입술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대구, 제고
- ② 나름, 너울
- ③ 달빛, 더위
- ④ 가게, 기차
- ⑤ 고국, 우애

5. 밑줄 친 단어의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치아가 상실되면 브리지를 걸치거나 틀니를 시술하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 ② 지역 축제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 있다.
- ③ ○○협회는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이 지역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유명하다.
- ⑤ 총괄 감독은 이번 공연의 컨셉트를 ‘자유’라고 설명했다.

6.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단어들은 띄어 쓴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을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교정	설명
① 집 밖에 누구도 없었다.	‘밖에’는 주로 부정하는 말과 어울려 쓰는 보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앞말과 붙여 쓴다.
② 그가 떠난지 닷새가 지났다.	‘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노래 한번 잘한다.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과 [제43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사과하고 끝이면 충분해.	‘하고’는 두 말을 이어주는 단어이므로 [제45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⑤ 그의 성은 박씨이다.	‘씨’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어이므로 [제48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7. 문맥상 ㉠과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옳은 것은?

- 덕이 아니라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면 (㉠)하여
결과 달리 내심으로 배반하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 그는 가늘지만 길게 (㉡)의 자세로 사는 것이 소시민의
처세 방법이라고 말한다.

㉠

㉡

- | | |
|--------------|------------|
| ① 면중복배(面從腹背) | 무골호인(無骨好人) |
| ② 면중복배(面從腹背) | 함포고복(含哺鼓腹) |
|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 함포고복(含哺鼓腹) |
| ④ 백수북면(白首北面) | 무골호인(無骨好人) |
| ⑤ 교언영색(巧言令色) | 상산구어(上山求魚) |

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중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 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여 현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도치와 반복을 사용하여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일상적인 체험을 초월한 시인의 예술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진실하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찬하고 있다.
- ⑤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9. ㉠~㉣을 활용하여 음운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을 음운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음운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 교체: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탈락: 본디의 음운이 사라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첨가: 본디 없었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① ‘맑지[막찌]’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② ‘꽃잎[꼇닙]’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잡혀[자펴]’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④ ‘색연필[생년필]’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굳히다[구치다]’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약 누군가 자신은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할 수 없고 혼자 있을 때만 된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과학적이지는 않다. 보편적으로 재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턴의 중력이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에서 모든 물체는 1초에 4.9미터 낙하한다. 이것은 지구상 모든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하다. 오늘 해 봐도, 내일 해 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뉴턴의 이론은 과학적이다.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과학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이 되었다고 믿는다. 요즘은 모두가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이라 불리기를 바란다. 많은 학문 분야가 자신의 이름에 ‘과학’을 넣으려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과학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예측 가능성과도 일맥상 통한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의 이론이라도, 실험 결과가 예측한 것과 다르면 그의 이론은 폐기된다.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이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그의 이론은 잘못된 예측을 내놓는다. 특허청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라도, 그의 이론이 재현 가능한 예측을 내놓는다면 그가 맞는 거다.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그래서인지 물리학자들은 권위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론이 옳다면 재현 가능한 증거를 보이면 그만인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모른다고 말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과학적인 자세이다.

- ① 과학은 보편적으로 재현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다.
- ② 모름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과학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 ③ 뉴턴의 이론도 예측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
- ④ 혼자 있을 때만 성공하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비과학적이므로 거짓이다.
- ⑤ 많은 학문 분야는 자신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은 생태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연을 위한 생태학은 은폐된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에서의 공동선이란 인간의 대지인 지구를 번영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왜 우리는 지구를 번영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생태학은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자연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재앙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고차원적인 공동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은밀한 목적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자연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걸 참상입니다.”라고 말하고, 생태학자들은 “우리는 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숲 가까이에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의 한 생태학자는 이러한 경향이 생태학적으로는 완전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도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오염 수준은 극도로 악화되지만, 일인당 오염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역을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꼭 들어차서 생태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대都市는 사실상 역설적으로 자연에게는 최선인 것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작은 자가 발전식 집에서 사는 생태적인 아이디어를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면, 이러한 집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숲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생태학적 경향에 대한 저의 불신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최고선으로 제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는 이미 은밀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태양열 자가 발전식 주택을 늘릴수록 더 넓은 면적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
- ② 도시의 밀집도와 오염도가 높아지면 자연에는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③ 오늘날의 생태학은 인간의 이기주의와 무관하게 고차원적인 공동선을 실현하고 있다.
- ④ 자연을 위한 생태학은 모순적이게도 인간 중심적 태도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숲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적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안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 윤선도, 「견회요」 -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은 아버이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③ 지은이가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 ④ 자연물과 화자를 동일시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⑤ ㉡을 통해 충과 효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최근 독감 의심 환자의 1/2 가량은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자금 및 정보력을 가진 이들은 규제의 허점을 파고 들어 가는 시도를 한다.
- ③ 급격한 기상 변화로 중부 지방에 수십 년 만에 최대치의 눈이 쌓여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 ④ 태풍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8월 3일자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조정하였다.
- ⑤ 본사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은 과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조지어 오키프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과학자들도 관찰력의 비결은 시간과 참을성에 있다고 믿었다. 곤충학자 카를 폰 프리슈는 자신의 관찰 능력이란 대단한 것은 아니고 단지 움직이지 않고 돌 틈에 몇 시간 동안 누운 채로 생물을 끈질기게 주시하는 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행인들이 무신경하게 못 보고 지나치는 순간, 세계는 참을성 많은 관찰자에게 그 놀라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벌이 추는 춤을 언어로 보고 해독한 성과 역시 그가 가진 관찰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물 심리학자 콘리트 로렌츠는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아름다움을 감식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참을성이라는 미덕을 선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동물들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해 낼 때까지 끈질기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자 너대니얼 셰일러는 학생 시절 한 가지 표본을 반복해서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 눈에 잘 띄이지 않던 것들, 이를테면 물고기의 양쪽 비늘의 배열이 다르다는 것 등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참을성 있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고생물학자 엘윈 시먼스는 화석을 찾아내는 진짜 기술은 빠르고 예리한 시각적 식별력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화석을 찾는 작업이 얼핏 보기에 무작위적이고 평범한 지형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구한 시간에 걸쳐 풍화된 돌들로 뒤덮인 이집트 사막에 이빨 화석 하나가 있다 한들 눈에 잘 띄이지 않는다. 그건 마치 책 한 권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책장을 훑히 넘기면서 찾는 일과 같다.”

열대 조류 전문가인 생물학자 채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장 탐사 작업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느낀 빠르고 작은 움직임이 새의 움직임인지 나뭇잎의 움직임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을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숲에서 새를 추적하건, 들판에서 곤충을 관찰하건, 암석층에서 화석을 찾아내건 간에 이런 날카로운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

- ① 참을성 있는 관찰은 과학적 성과의 충분조건이다.
- ②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해석까지 도출해 낼 수 없다.
- ③ 목적을 가진 관찰이 과학적인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
- ④ 과학자에게는 예리한 시각적 식별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 ⑤ 채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장 탐사 작업 시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활용한다.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상에 발을 들인 첫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한다. 동떨어진 섬과 같은 아기는 없다. 신생아들조차 다른 사람의 표정에 반응한다. 실험자가 아기에게 혀를 내밀어 보이면 아기는 그를 흉내 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아기는 태어나 거울을 본 적이 없기에, 어른의 혀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 입속의 그것에 대응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틀림없다.

아기들은 타인의 고통에도 반응한다. 어린 윌리엄 다윈이 생후 6개월 때 유모가 우는 척하자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동정심’을 보였던 일을 기억하는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도 우는 소리는 아기에게 불쾌하다. 그래서 그 소리에 아기들도 대체로 따라 울게 된다. 소음에 대해 말로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아기들은 자기 울음소리보다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더 많이 운다. 반면, 볼륨은 같더라도 컴퓨터로 생성된 소음을 들을 때나 새끼 침팬지의 울음을 들을 때는 그만큼 울지 않는다.

다른 생명체들도 같은 종의 구성원이 괴로워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배고픈 히말라야원숭이는 음식을 손에 넣기 위해 레버를 당겼을 때 다른 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면 그 레버를 당기지 않으려 든다. 쥐는 공중에 매달린 다른 쥐를 내려주거나 물이 채워진 수조에 갇힌 쥐를 풀어주기 위해 막대를 누른다. 그리고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제공해 주는 막대를 눌렀을 때 다른 쥐가 충격을 받으면 그 막대를 누르는 행동을 멈춘다.

- ① 신생아는 갓 태어났으므로 아직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
- ② 아기들은 의식적 인지를 통해 주변 어른들의 행동에 반응한다.
- ③ 아기와 달리 쥐는 동족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한다.
- ④ 동족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는 히말라야원숭이가 쥐보다 더 크다.
- ⑤ 아기는 사람의 소리보다 다른 생명체의 소리에 덜 반응한다.

16. 다음 글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띠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십년을 경영하여」 -

- ①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 -

- ②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윤동주, 「서시」 -

- ③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 ④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땡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 정지용, 「고향」 -

- ⑤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조지훈, 「민들레꽃」 -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 ‘이산’, ‘흩어진 사람들’을 뜻한다. 전에는 ‘팔레스타인 밖
 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전쟁이
 나 식민지화 등으로 인해 고국을 등져야 했던 백성과 그 후손
 들의 총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경
 우에도 이른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해외 동포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고통스러웠던 전개
 과정에서 원치 않게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지로 떠나야 했
 던 이들과 그 후손을 들 수 있다.

어떤 공동체에는 언어 사용의 문제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경우
 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공동체 내부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그 나라 말을 사용해야 하는 다중
 언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주 1세대
 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생존을 위해 현지의 언
 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전체적으로 낮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정서와 감정, 문화와 사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다중 언어
 사회의 언어 문제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된 우리 사회
 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맞닥뜨린 다중
 언어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
 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
 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는 언어 사용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③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④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언어 교육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⑤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겪는 언어 사용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18.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영역 수호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몇 주간에 걸친 세미나나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평생교육원이 주최하는 ‘코바늘뜨기 고급반 과정’의 첫날, 몇몇 수강생은 작심한 듯 눈에 불을 켜고 강의실에 들어오고, 다른 몇몇은 약간 쑥스러워하며 들어온다.

(가)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 무리에 속하는지 여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지칭되는 명칭이 치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위상이 애매해진다. 텔레비전의 토크쇼를 보더라도 개성 있는 패널들로 채워지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제작진의 세심한 의도 아래 구성된 것이다.

(나) 일주일의 지나 수강 둘째 날이 왔다. 수강생들의 움직임은 확연히 빨라졌다. 강의실에 입장하자마자 일주일 전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총총걸음으로 돌진한다. 이름표가 붙은 책상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신속정확하다. 배려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간혹 이렇게 묻기도 한다. “헛갈려서 그러는데요, 저번 주에 이 자리가 제 자리였나요?” 사실 코바늘뜨기 과정에서 누가 어디 앉든 무슨 문제가 될까?

(다) 이제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행동이 굼뜨거나 소심한 수강생들은 남아 있는 자리에 그냥 앉는 경우가 많다. 착석하자마자 어깨에서 벗겨진 외투는 의자에 입혀진다. 이 자리에 입자 있다는 표시다. 여성들은 의자 한쪽에 핸드백을 걸어 놓기도 한다.

(라) 인간은 낯선 사물, 낯선 사람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친숙해지고 싶어 한다. 위의 경우에는 새로운 강의실과 수강생들이 될 것이다. 조직심리학을 연구하는 외르크 펠페에 따르면, 인간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어느 무리에서든 최대한 신속하게 자기 자리를 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마) 그런데 여기서 모순에 부딪힌다. 무리의 소속감을 원하는 마음과 개인으로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첫날 앉았던 자리를 차지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즉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맨 앞줄 환등기 오른쪽에 앉은 사람’ 또는 ‘창가 맨 뒷줄 남자’로 차별화되어 각인되고 싶어 한다.

- ① (가) - (마) - (나) - (다) - (라)
- ② (다) - (나) - (라) - (마) - (가)
- ③ (다) - (라) - (나) - (마) - (가)
- ④ (라) - (나) - (다) - (마) - (가)
- ⑤ (라) - (나) - (마) - (다) - (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문20.]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개별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이웃, 사회, 환경 등 더 넓은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윤리적 소비는 구매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지향하며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소비 실천 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산업화 이후 경쟁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의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지속 가능 발전이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구 환경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 실천 행동이므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현대 소비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소비 행동으로 환경오염, 빈부 격차,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현대 소비 사회의 주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소비 행동이며,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환경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 행동이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자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② 윤리적 소비는 어떠한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는가?
- ③ 산업화 이후 지구 환경에 나타난 변화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④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⑤ 특정한 기업의 성장 전략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가?

2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윤리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 ② 윤리적 소비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 행위에서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
- ③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려는 소비 행동이다.
- ④ 윤리적 소비는 환경오염이나 빈부 격차 등 현대 소비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⑤ 윤리적 경영 여부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영 어

※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문1.~문4.]

1.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game seemed indifferent about the loss and wanted to move on and just forget about it.

① apathetic

② unsettled

③ sympathetic

④ receptive

⑤ vigilant
2. I think all the arguing about whether AI is good or bad obscures a more interesting thing happening right now, which is that this stuff, in its present form, has become genuinely useful.

① streamlines

② alienates

③ obfuscates

④ enlightens

⑤ replicates
3. These two views of musical performance are sometimes called the creative (spontaneous and improvised) and re-creative (practiced and deliberate) mode of performance.

① inaccurate

② inspired

③ immaculate

④ impersonated

⑤ impromptu
4. During his visit to the north, British media showed Johnson confronted by a man on a street who chastised the prime minister for campaigning and not working with European officials to come up with a deal to get Britain smoothly out of the EU.

① complimented

② reprimanded

③ patronized

④ trailed

⑤ dispelled

※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5.~문6.]

5. The first place to start when you look at the Nutrition Facts panel is the serving size and ①the number of servings in the package. Serving sizes are given in familiar units, such as cups or pieces, ②followed by the metric amount. Serving sizes are based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typically eat, which ③makes them realistic and easy to compare to similar foods. Calories are a measure of how much energy you get from a serving of this food. Eating too much fat or too much sodium may increase your risk of certain chronic diseases, like heart disease or high blood pressure. Eating too many calories is linked to ④be overweight and obesity. Americans often don't get enough dietary fiber, vitamin A, vitamin C, calcium, and iron in their diets. Eating enough of these nutrients can improve your health, and they help ⑤reduce the risk of some diseases.
6. Only a modern-day Rip Van Winkle could have missed the fact that digital technology has made ①it a whole lot easier to plagiarize. As the New York Times expressed it in the title of a 2010 article ②on the subject, "Plagiarism Lines Blur for Students in Digital Age." The article goes on to say what many instructors on college campuses have noted: A disturbing number of students seem to think it is acceptable to "write" a paper ③by pulling up several websites on the same topic and then cutting and pasting together sentences or entire paragraphs drawn from the different sites. Even worse, there are signs ④that this trend is on the rise. According to surveys taken by the Center for Academic Integrity, the number of students who think cutting and pasting from sites on the Web is serious cheating ⑤has been declined markedly in only a few short years. A few years ago, 34 percent considered it serious. Now only 29 percent do.
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Our ideas about conversation inevitably shape how we perceive the debates. ①This means, for example, that what seems an interruption to one viewer might be merely an interjection to another. ②Conversation is an exchange of turns, and having a turn means having a right to hold the floor until you have finished what you want to say. ③So interrupting is not a violation if it doesn't steal the floor. ④Etiquette calls interrupting someone else rude behavior and unfitting for people in refined society. ⑤If your uncle is telling a long story at dinner, you may cut in to ask him to pass the salt. Most (but not all) people would say you aren't really interrupting; you just asked for a temporary pause.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scientists at the time believed that happiness was essentially random: It was not something to cultivate, like a garden, or to reach for, by setting and achieving meaningful goals. It was something that happened to people, by virtue of their genes, their circumstances or both. “It may be that trying to be happier is as futile as trying to be taller and therefore is _____,” the authors of a 1996 study concluded.

- ① essential
- ② invaluable
- ③ irresponsible
- ④ significant
- ⑤ counterproductive

※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9.~문10.]

9. New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how organizations perceive and manage their assets, as products and services are enhanced with digital capabilities that increase their value. An automobile company, for example, shows how over-the-air software updates and connectivity can be used to ①enhance a product (a car) after purchase, rather than let it depreciate over time. Not only ②are new materials making assets more durable and resilient but data and analytics are also transforming the role of maintenance. Analysis provided by sensors placed on assets ③enabling their constant monitoring and proactive maintenance and, in doing so, maximizes their utilization. It is no longer about finding specific faults but rather about using performance benchmarks (based on data supplied by sensors and monitored through algorithms) that can highlight when a piece of equipment is moving outside ④its normal operating window. On air crafts, for example, the airline control centers know before the pilots do ⑤if an engine is developing a fault on a particular plane. They can therefore instruct the pilot on what to do and mobilize the maintenance crew in advance at the flight destination.

10. The Academy Awards, popularly known as the Oscars, are awards for artistic and technical merit in the film industry. ①Given annually by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the awards are an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excellence in cinematic achievements, as assessed by the Academy’s voting membership. The various category winners ②are awarded a copy of a golden statuette, officially called the “Academy Award of Merit,” although more ③commonly referred by its nickname, the “Oscar.” The first Academy Awards ceremony ④was held on May 16, 1929, at a private dinner function at the Hollywood Roosevelt Hotel with an audience of 270 people. Recipients ⑤were announced three months earlier.

11.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One vital fact I have learnt is that the brain is not the unchanging organ that we might imagine. It not only goes on developing, changing and, in some tragic cases, eventually deteriorating with age, it is also substantially shaped by what we do to it and by the experience of daily life. When I say “shaped,” I’m not talking figuratively or metaphorically; I’m talking literally. At a microcellular level, the infinitely complex network of nerve cells that make up the constituent parts of the brain actually change in response to certain experiences and stimuli. The brain, in other words, is malleable—not just in early childhood but right up to early adulthood, and, in certain instances, beyo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as a huge impact both on the way our brains develop and how that brain is transformed into a unique human mind.

- ① 인간의 뇌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② 환경과 경험은 인간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 ③ 뇌는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 ④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자연스럽게 쇠퇴한다.
- ⑤ 뇌의 사용량은 뇌세포의 개수를 결정한다.

12.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icroplastics and smaller nanoplastics (less than one micron in length) have been found in humans, including infants and breast milk. They can cause metabolic disorders, interfere with our immune and reproductive systems and cause behavioural problems.

- (A) The decision was based on extensive public and industry consultation, as well as decades of data on plastic pollution gathered from the Great Canadian Shoreline Cleanup.
- (B) These health problems may be caused by chemicals added to plastics, including single-use plastics, of which 4,200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as posing a hazard to human and ecosystem health.
- (C)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the Canadian government introduced a ban on single-use plastics in 2022 as part of a plan to reach zero plastic waste in Canada by 2030.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13. 밑줄 친 (A)와 (B)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way we dress becomes part of the message we send to others, whether we intend it to or not. Our clothes and style of dress contribute to the way we see ourselves and the way others perceive us. Our style of clothing also reflects our ability or willingness to adjust to a variety of social situations. (A), what we choose to wear can reflect our desire to gain acceptance within a given social situation. For instance, if we wanted to “fit in” among the other guests at a formal dinner party, we would wear a tuxedo or an appropriate evening dress. (B), our choice of dress reveals information about ourselves and affects our impact in both interpersonal and public communication settings.

- | | (A) | (B) |
|---|-------------------------|---------------|
| ① | For example | Nonetheless |
| ② | Under the circumstances | In retrospect |
| ③ | By contrast | Furthermore |
| ④ | In other words | Moreover |
| ⑤ | On occasion | However |

1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Latin term *deus ex machina* refers to the sudden and often unexpected appearance of a divine figure on the theatre stage, unravelling the otherwise insoluble predicaments of the humans, thus bringing the performance-narrative to a closure. Its literal meaning, “god from the machine,” comes from ancient stagecraft in which an actor playing a deity would be physically lowered by a crane-like mechanism onto the stage. Such supernatural interventions were quite common on the Greek classical stages, but they were severely criticized already by Aristotle. He argued in *The Poetics* that since the poet should always aim either at the necessary or the probable, the unravelling of the plot, no less than the complication, must arise out of the plot itself; it must not be brought about by the *deus ex machina*.

- ① *deus ex machina*는 이야기를 종결짓는 데 사용되었다.
 ② *deus ex machina*는 문자적 의미로 ‘기계에서 온 신’을 뜻한다.
 ③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신 역할의 배우는 기계 장치에 의해 무대 위로 내려졌다.
 ④ *deus ex machina*는 그리스 고전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던 기법이 었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deus ex machina*가 플롯의 개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1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variety of well-preserved artifacts provide a glimpse into the Clovis way of life. Evidence unearthed at various sites includes fluted stone points now dubbed Clovis points. They were probably attached to a type of spear and used for hunting big game. The length of most Clovis points found at the sites ranges from one to five inches. Larger points were necessary to hunt big game such as the monstrous mastodon and mammoth. These giant animals were preferred because meat from a single animal could provide sufficient food for a large tribe for about a month. Besides the meat, the Clovis also used the bones, tusks, and hides to build shelters and fashion, cooking utensils, tools, and other weapons. It is likely that the Clovis used ambush-hunting techniques as their prey congregated at marshy watering locations. The soft terrain would have hindered the movement of the animals.

- ① 대부분의 Clovis 돌촉의 길이는 5인치 이상이었다.
 ② Clovis 부족은 큰 동물보다 작은 동물 사냥을 선호했다.
 ③ 돌촉은 건축이나 도구 제작에 주로 활용되었다.
 ④ Clovis 부족은 습지 물가에 모인 동물을 매복하여 사냥하는 기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⑤ 부드러운 지형은 동물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16. 다음 밑줄 친 (A)와 (B)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reat Depression that followed the crash of 1929 was the most devastating economic blow ever suffered by the nation. Children grew up thinking that economic (A) was the norm rather than the exception in America. Year after year, people kept looking for a return to wealth. But the outlook remained dismal. The Depression loosened its grip on the nation only after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in 1939. Even then, it left lasting mental and emotional scars. The Americans who lived through it would never again be so (B) about their economic future.

- | | (A) | (B) |
|---|-------------|------------|
| ① | deprivation | optimistic |
| ② | foundation | skeptical |
| ③ | growth | passionate |
| ④ | inequality | guilty |
| ⑤ | balance | defensive |

17.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Some researchers thought that dreams were actually the way the brain cleaned itself. During the day, a person has thousands of different thoughts and impressions from what they see and hear. Not all of these impressions can be fully processed by the brain. People are distracted from processing many of these impressions by more important thoughts or impressions. At night when a person is dreaming, the half-impressions from the day are processed and thrown away by the brain. Because the brain only has a half-impression to process, the mind uses a person's imagination to complete the impression. Dreams are therefore seen as half real and half fantasy. This theory also says that a person who does not get the chance to dream because her or his sleep is disturbed will go crazy because too many half-impressions will fill up the brain. There will not be room left in the brain for normal thought.

- ① The Role of Fantasy in Dreams
- ② Brain Capacity and Thoughts
- ③ The Function of Dreaming
- ④ Deep Sleep and Half-impressions
- ⑤ The Danger of Cleaning Impressions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18.~문20.]

18. In his allegory of the cave, Plato describes a group of prisoners, shackled in a cave since their childhood. Only able to gaze at the cave wall, their view consists solely of the shadows cast onto it by a fire lit behind them. For the prisoners, these shadows are reality. In truth, they are made by objects out of their sight. One prisoner is freed, brought outside of the cave, and allowed to become accustomed to life beyond. He learns to appreciate the outside world and become aware of how little he understood beforehand. In his new position of enlightenment, the freed prisoner runs back into the cave to try and assist his former colleagues in joining him out in the sun. However, the rest of the prisoners resist his attempts to lure them outside. While the prisoner who has left the cave understands that the shadows on the walls _____, those left in the cave have no desire to leave because they know no other life.

- ① do not truly represent reality
- ② clearly reveal the truth beyond
- ③ accurately mirror the outside world
- ④ do not strongly hide their inner beliefs
- ⑤ are more colorful than those outside the cave

19. Human beings are empowered with creativity. The human intellect and mind always quests for something new, and today's development, what we are witnessing, is the consequence of this creativity. Humans depend on their power of creativity to create machines in their own image and bestow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also to triumph over diseases and death by exploring the concept of artificial life. At the same time, _____. For this reason, humans tend to adhere to ethical and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consequences of such development. AI is on a threshold and expected to lead human civilization with a new orientation that may change the traditional concept of life and working habits at a breakneck speed. Humanity is looking at AI with curiosity and doubt, fear and favor, anticipation and trepidation—in confusion and dilemma about whether to welcome it or to discard it.

- ① there are opportunities that AI may ameliorate human lives
- ② there are definite changes in human behavior that AI may bring about
- ③ there is apprehension that the techniques may turn against their own survival
- ④ there is an increase in human power to solve complex AI-related problems
- ⑤ there is AI-supported research associated with court filings and medical data

20. Thrift stores are usuall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receive used clothing, toys, furniture and housewares from people as donations. The store then employs people to clean the used goods and display them in the store. People are also paid to be sales clerks and managers in the store. Many job searchers see thrift stores as recession-proof because people shop at them to save money. Workers are not the only people benefiting from thrift stores. Shoppers can also find great deals on goods that cost a lot less than if they buy them at a supermarket or department store. This lets people buy the things they need _____. People who donate things to thrift stores benefit, too. They not only get a good feeling from giving their unwanted things for a good cause, but they can also get tax deductions that lower their yearly income tax. Thrift stores may not have the newest items, but they help many people during difficult economic times.

- ①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 ② on a lower budget
- ③ for logistical support
- ④ in pursuit of minimalism
- ⑤ to gain fame

한국사

1. 밑줄 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남한에서 발굴된 이 시대의 첫 유적은 공주시 장기면 석장마을 아래편 금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찻개, 자르개 등이 발굴되었다. 또한 드러난 석기 제작터를 통해서 석기 제작 수법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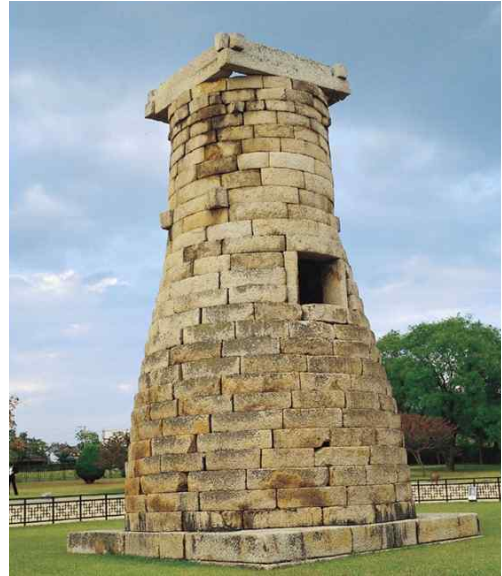
- ① 곡식을 재배하였다.
- ② 고인돌 무덤을 만들었다.
- ③ 진흙을 불에 구워 그릇을 만들었다.
- ④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감을 만들었다.
- ⑤ 흑요석을 운반해 석기를 만들었다.

2. 밑줄 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국 문헌 중 관자(管子)에 이 국가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 전국책(戰國策)과 사기(史記)에 이 국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 이 국가는 B.C. 3세기 초에 중국 연(燕)의 침공을 받아 서쪽 영토를 크게 상실하였다.

- ① 위만이 무리 천여 명을 이끌고 망명해왔다.
- ② 무너 있는 짐승의 가죽이 특산품으로 유명하였다.
- ③ 삼국사기와 제왕운기에 건국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 ④ 도둑질한 자가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했다.
- ⑤ 왕이 연과 전쟁을 벌이려다가 대부(大夫)인 예(禮)의 만류로 그 만두었다.

3. 다음 문화유산이 건립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신라가 대가야를 통합하였다.
- ②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③ 고구려가 수의 대군을 살수에서 물리쳤다.
- ④ 백제가 겸익을 등용하여 불교를 진흥하였다.
- ⑤ 신라가 문무 관료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4.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병력이 많은 것만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을 떼어 준다면 이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닙니다. …… 정상께서는 수도로 돌아가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적과 한번 담판을 하게 한 후에 다시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고려사』 -

- ① 고려와 송의 교류를 끊기 위하여 침략하였다.
- ② 금을 건국한 후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 ③ 철령위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 ④ 고려에 보낸 사신이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침략하였다.
- ⑤ 말갈이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

5. 다음 격문을 발표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라. 무릇 관서 지방은 단군 조선의 터전으로 예로부터 문물이 빛났고, 임진·병자 두 병란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난 자랑스러운 곳이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이 땅을 천시하니,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 ① 박천 송림에서 관군에게 패하여 기세가 꺾였다.
- ② 경상도 단성에서 봉기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정주성에 들어가 약 4개월간 관군과 대치하며 농성하였다.
- ④ 봉기군은 한때 청천강 이북의 일부를 점령하여 기세를 올렸다.
- ⑤ 평민, 장사층(壯士層), 토착 유력가 등 다양한 계층이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6.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세종 대에 공법을 제정해 토지 비옥도 및 풍흉에 따라 전세에 차등을 두었다.

ㄴ. 경국대전에 따라 10년마다 양전을 실시해 토지를 파악하였다.

ㄷ.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ㄹ. 영조 대에 균역법을 실시해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로 낮추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7. 다음 내용을 발표한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제9조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제14조 의정부와 6조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참작 협의해 아뢰도록 할 것.

- ①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②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④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되었다.
- ⑤ 척화비가 전국에 설치되었다.

8. 다음 유훈을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경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을 이루게 하라.

- 『고려사』 -

- ① 후고구려를 세우고 미륵부처를 자처하였다.
- ②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신라를 침략하였다.
- ③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해 인재를 등용하였다.
- ④ 2성 6부와 중추원 등 중앙정치기구를 정비하였다.
- ⑤ 계백료서를 지어 신하의 도리와 규범을 제시하였다.

9.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본격적인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수도 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벌판을 끼고 있는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겼으며,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세웠다.
- ②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
-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중앙 관청을 22부로 정비하였다.
- ⑤ 관리의 등급을 17등급으로 나누었다.

10. 밑줄 친 ‘화(禍)’가 일어난 후 전개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운·소운의 설이 있었는데 군소배들이 부회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 등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인종이 승하한 뒤에 윤원형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고 위험한 말을 꾸며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소문이 위에까지 들리고 자전(왕의 어머니)은 밀지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 등이 변을 고하여 큰 화(禍)를 만들어냈다.

- 『명종실록』 -

- ①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 ②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 ③ 정국 공신의 위훈 삭제가 논의되었다.
- ④ 김종직의 문인이 다수 피해를 입었다.
- ⑤ 폐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훈구 대신들이 제거되었다.

11. <보기 1>의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과 그 재임 중 발생한 <보기 2>의 사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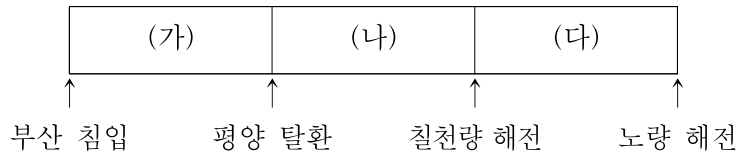
- ㄱ.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ㄴ. 미나미 지로(南次郎)
 ㄷ.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 < 보 기 2 > —

- a. 「치안유지법」이 조선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b. 「범죄즉결례」가 조선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c. 「임시자금조정법」이 조선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 ① ㄱ - b
 ② ㄱ - c
 ③ ㄴ - a
 ④ ㄴ - b
 ⑤ ㄷ - c

12. (가)~(다)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 벽제관 전투
 ② (가) - 한산도 대첩
 ③ (나) - 훈련도감 설치
 ④ (나) - 행주 대첩
 ⑤ (다) - 명량 대첩

13.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항은 일본 공관이 세워져 오랫동안 이미 양국 인민이 통상하는 구역이 되었다. 지금 마땅히 종전의 관례 및 세건선 등의 일을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의거해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재류하면서 만약 죄를 범해 조선국 인민과 교섭해야 하는 것은 모두 일본 관원에게 귀속시켜 심의하고 처단한다.

- ① 일본 공사관에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하였다.
 ②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였다.
 ③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기로 하였다.
 ④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⑤ 방곡령 선포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고하도록 하였다.

14.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왕께서 또한 네 조정의 근래 정사에서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혜종께서는 골육을 보전한 공적이 있으시니, 이른바 형제간에 우애의 의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종께서는 반란의 싹을 미리 아시고 내란을 잘 진정시켜 다시금 왕실과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왕위를 전수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지모가 밝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고려사』 -

— < 보 기 > —

- ㄱ. 철전 발행
 ㄴ. 삼사 설치
 ㄷ. 상평창 설치
 ㄹ. 경학박사 파견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5. <보기>의 사건을 시기 순으로 나열할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 보 기 > —

- ㄱ. 고부민란
 ㄴ. 청일전쟁
 ㄷ. 전주 화약 체결
 ㄹ. 홍범 14조 반포
 ㅁ. 교조신원운동(보은)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6. 밑줄 친 ‘중대(中代)’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나라 사람들이 시조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3대(代)로 나누었다. ……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의 여덟 왕을 중대(中代)라 하며, ……

- 『삼국사기』 -

- ① 사정부를 설치하였다.
- ②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③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④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⑤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하였다.

1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대사령을 내리고 5월 3일에 홍복사 터에 거둥하여 중친 및 신하들과 새로운 사찰 창건을 논의한 뒤 조성도감을 만들었다. 대중의 주조를 위해서 동 5만 근을 전국에서 모으도록 하였다. 마침내 사월 초파일에 10층 석탑이 완공되자 연등회를 베풀고 낙성하였다. 이 석탑에는 분신 사리와 언해본 원각경을 봉안하였다.

- ① 간경도감을 설치하였다.
- ②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 ③ 6조 직계제를 처음 시행하였다.
- ④ 사섬서를 설치하여 저화를 발행하였다.
- ⑤ 한양으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

18. 밑줄 친 ‘단체’가 발표하였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한 언론계, 불교계, 천도교계, 기독교계 등의 민족주의 진영과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위축되었던 사회주의 진영은 연합하여 1927년에 이 단체를 창립하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지회 중심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이 단체는 전국 순회강연과 연설회를 개최하였으며, 노동·농민 운동 등 각종 사회 운동을 지원하고 수재민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①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 ②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근본 강령이다.
- ③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다.
- ④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과 민족의 단결을 추구하고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 ⑤ 심오한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19. 다음의 ㄱ~ㄹ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윤관이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ㄴ.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 ㄷ. 지눌이 정혜결사를 개창하였다.
- ㄹ.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ㄱ → ㄷ → ㄴ → ㄹ
- ③ ㄴ → ㄱ → ㄹ → ㄷ
- ④ ㄴ → ㄷ → ㄱ → ㄹ
- ⑤ ㄴ → ㄹ → ㄱ → ㄷ

20. 다음 헌법이 적용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제39조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 제40조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①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반포되었다.
- ② 미 해군 정찰기 EC-121기가 동해상에서 격추되었다.
- ③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궐에서 아시아 외교정책을 발표하였다.
- ④ 남파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하여 총격전이 벌어졌다.
- ⑤ 고구마 수매 문제를 둘러싸고 함평 고구마 사건이 일어났다.

헌 법

1.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ㄱ.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ㄴ.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ㄷ.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ㄹ.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ㅁ.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 ②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
- ③ 소득에 단순 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사회경제질서 및 국민경제의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 ⑤ 개인의 담세능력은 법률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할 것을 요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에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지만, 그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 ⑤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ㄱ.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
- ㄴ.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 ㄷ.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보관·전산화하도록 규정한 구「주민등록법」 등의 조항
- ㄹ.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 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 ① ㄱ,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5.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수범자에게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②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는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 ③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여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서 충족된다.
- ④ 형사 관련 법률에서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 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서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같은 순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6.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의 수권이 없는 법률 규정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다.
- ④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⑤ 정당해산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된다.

7.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형벌 없이 징계의 제재를 함에 반해, 공익근무요원의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②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③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수의 증가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달리 규율하는 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 ⑤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보다 소구당한 채무자에게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 손해금 채무를 부담시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 ④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9.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부 고소권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고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의 사실행위 가운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③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④ 구「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⑤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 ②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③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이 청원 업무를 주관한다.
-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없을 경우,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1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격리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계호근무준칙 조항은 검사조사실의 인적, 물적 계호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13.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의 발의를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규정했다.
- ②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 발의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규정했다.
- ③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규정했다.
- ④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 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한다.

14. 헌법규정상 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의 자격과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15.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③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④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1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 ②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 ③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17.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 ②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부분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한 사건에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⑤ 헌법재판소는 정당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18.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② 헌법전문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적 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④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국제평화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⑤ 헌법은 침략적 전쟁의 부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

1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않는 것을 말한다.
- ②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③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같이 국회의 의결로써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국회 내에서 배포하고, 또한 인터넷에도 게시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 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직무와 관련이 없이 타인에 대하여 비난·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폭행 기타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성질상 면책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행정법총론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 ②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면 된다.
- ③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 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2.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 국가의 원리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③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이라크전쟁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⑤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③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
- ④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③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처분의 재심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⑤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 ③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⑤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 ⑤ 구「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7.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환지계획이 발령되면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⑤ 정부가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

9.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 ②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므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③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 ⑤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ㄱ. 행정기관은 같은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ㄴ. 행정지도는 법적 성격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ㄷ.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ㄹ.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며, 이때의 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 있다.
- ② 부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있기에 위반 결과의 시정을 위하여 대집행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
- ③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과세관청이 채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것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④ 군용비행장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4.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ㄱ. 행정질서벌의 수단으로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 ㄴ. 과태료의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하거나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ㄷ.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로써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 ⑤ 인용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6. 밑줄 친 ‘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의 권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권력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이 일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작용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존부 내지 이행의 청구 등을 다투는 것이다.

< 보 기 >

- ㄱ. 공중보건의사 고용계약관계에서의 해지통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ㄷ.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ㄹ. 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자 할 때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할 때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7.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개발이익 역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②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등재행위
 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ㄷ.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ㄹ.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행정소송의 피고와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그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